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공공정책은 비선출직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로비 활동이 늘고 정치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거리도 멀어졌다. 정치가 국민의 뜻과 유리돼버린 것이다. 독일 대안당의 한 지도자는 기성 정치인들은 현상 유지만을 바라고 있지만 대안당은 그들과 다르게 독일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고 있는 나라로 스위스를 언급하며 그 나라의 정치를 높게 평가했다. 스위스는 2009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58%의 찬성률로 이슬람 침략의 건립을 금지했던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의 한 정치가는 2017년 총선에서 11개의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중 두 번째는 “코란을 금지한다.”였다. 그러나 세 번째 공약은 민주적으로 보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를 도입한다.”

(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고대도시국가의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정치체제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더 우월한 것이다.

(다) 잠재적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중앙무대로 올라서려 할 때 기성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미국의 대선 예비경선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지나치게 민주적인 방식인지 모른다. 대선 후보 지명을 오로지 투표자의 손에 맡겨둬으로써 정당이 지니는 문지기 역할을 약화시켰고, 동료에 의한 평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아웃사이드더게 문을 열어 놓았다.

(라) 국민의 뜻이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면서, 개인 권리 존중과 국민자치의 독특한 조합인 자유민주주의가 분리되고 있다. 대신 두 가지 체제, 즉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라고 할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이라고 할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국민의 뜻을 외면할 것인가?

[문제 1] (가)에 제시된 사태에 대해 (나)와 (다)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고 그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문제 2] (라)의 ㉠과 ㉡ 중 어느 경향이 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체제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인지 (가)에 제시된 사태와 연관지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오.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항해설	[문제 1] ◦ (가)는 정치가 국민의 뜻과 유리된 상황에서 기성 정당은 현상유지를 바라지만 일부 대안 정당은 국민에게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임. 그런데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은 종교의 자유 등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더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함. 그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식, 덕성, 지혜 등의 미덕을 갖춘 엘리트가 통치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비롯함. (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에 비판적임. 이슬람 침략 건립 금지와 같은 종교의 자유 침해는 그러한 폐해를 잘 보여준다. ◦ (다)는 선거에서 위의 미덕을 갖춘 엘리트가 선출될 보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함. 선동가가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당(체제) 내에서 그러한 문지기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함.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기성 정치 지도자들이 선동가/선동정치의 출현을 제대로 막지 못한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 ◦ (나)와 (다)의 입장은 엘리트 통치에 편중돼있다는 비판이 가능함. (나)의 주장을 비판하면, 선출된 대표의 통치가 일반 국민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고 많은 결정이 비선출직에 의해 내려짐. (다)의 주장을 비판하면, 정당체제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치가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소외가 심화됨. 결국은 (나)와 (다)가 우려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제 2] ◦ (라)는 국민의 뜻이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 없는 자유주의와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분리되며 자유의 가치(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국민의 뜻)가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 민주주의 위기의 성격이라고 주장함. ◦ (가)에 제시된 사태는 (라)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분리 현상의 현실 사례임. 기성 체제는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인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이고 대안 정당이 주장하고 있거나 실천한 정치체제는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임. 두 경향 중에 어느 것이 심해질 때 민주주의에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임.
출제의도	[문제 1]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그것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분석하는 응용력과 분석력,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비판력과 창의력을 평가한다. [문제 2]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그것을 구체적 상황과 연관 짓는 응용력, 그리고 유추하고 추론하는 창의력과 논리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포퓰리즘, 권리, 자유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최원식 외, 《국어》, 창비, 170-181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74-89쪽 이삼형 외, 《국어》, 지학사, 185-195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46-59, 72-78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46-55, 64-68쪽 서혁 외, 《독서》, 좋은책 신사고, 52-61, 70-79쪽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주)교학사, 184-203쪽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182-189, 191-196쪽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177-184, 187-192쪽 모경환 외, 《정치와 법》, (주)금성출판사, 78-84, 86-89쪽 이경호 외, 《정치와 법》, 미래엔, 82-86, 88-91쪽 정필운 외, 《정치와 법》, 비상교육, 77-82, 85-89쪽 [기타] 야스찬 뭉크 (함규진 역),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와이즈베리, 2018 최장집, 〈촛불시위의 결과가 직접민주주의인가〉, 중앙일보 칼럼, 2017.10.11.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박세연 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크로스, 2018